“만해 회갑연 ‘수연첩’ 근대문화유산 지정을”

김광식 전 교수, 〈한마음연구〉 게재 논문서 제언

1939년 만해 스님 회갑연 조명해
서울 비구니 사찰 청량사서 열려
청량사, 당시 행사 · 휴식처 각광
주지 자영 스님, 궁중요리도 유명
회갑연, 당대 문인 · 유명인 참여
“청량사, 수연첩 등 연구 필요해”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1939년 8월 26일(음력 7월 12일), 서울 비구니 사찰 청량사에서는 특별한 연회가 개최됐다. 당대 최고 문인이자 독립운동가로 이름을 알린 만해 한용운 스님의 회갑연이 열렸기 때문이다. 만해 스님의 회갑을 축하하기 위해서 당대 문인과 민족운동가, 지식인들이 모였고, 이들은 각자의 글귀를 적은 서첩(書帖)도 남겼다. 이 서첩은 ‘만해수연첩’이라는 이름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만해 스님의 회갑연은 당대 문화사와 만해 스님 인물관계도 등을 읽을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다. 이를 면밀하게 고찰한 연구논문이 한마음선원 부설 대행선연구원 학술지 〈한마음연구〉제13호에 발표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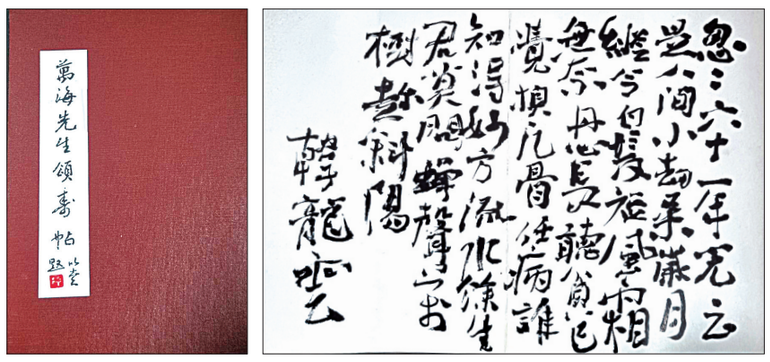
김광식 전 동국대 특임교수는 게재 논문 ‘만해 한용운 회갑연과 청량사’를 통해 만해 스님의 회갑연의 전말을 살폈다.

먼저, 김 전 특임교수는 만해 스님과 청량사의 관계를 조명했다. 당시 신문 및 잡지 기사들에 따르면 청량사는 경성 사람들의 피서 사찰이자, 문인과 불교인들의 행사장소로 각광을 받았다. 조선불교중앙청년회 발기인 총회가 청량사에서 열렸고, 이병기·이은상·이기영 등의 출판기념회가 열린 장소도 청량사였다.

청량사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비구니스님들 중에 김 전 특임교수는 1929년부터 주지 소임을 맡았던 신자영 스님을 주목했다. 고은 시인의 〈만해 평전〉에 따르면 신자영 스님은 한말(韓末) 궁중 후인으로 왕과 왕비의 수라상을 책임졌던 궁중요리 전문가였고, 평소에도 만해 스님을 존경해 용채를 제공하며 후원했다고 했다.

김 전 특임교수는 “신자영 스님이 만해 스님을 존경해 후원했다는 정황은 스님의 회갑연이 청량사에서 열리게 된 결정적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만해 스님의 회갑연을 주도한 인물은 누굴까. 남겨진 기록마다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기술되고 있는 인물은 ‘박광’이다. 김 전 특임교수에 따르면 박광은 만해 스님의 동지로 비밀결사 대동청년단원이었고, 의열단·임시정부를 후원한 독립운동가였다. 1930년대 초반 경성에서 거주하기 전까지 중국에서 독립운동을 했으며, 이때부터 만해 스님과 동지가 됐다. 1935년 심우장 건립 당시 후원했으며, 1944년 만해 스님 원적 시에도 조문했다. 만해 스님의 사후에 스님의 자료를 10년간 보관하기도 했다.


‘만해수연첩’ 표지(사진 왼쪽)와 만해 스님이 회갑을 맞아 소회를 담아낸 글.

김 전 특임교수는 “〈한용운전집〉과 김관훈의 글에 따르면 만해 스님의 회갑연 주최자로 박광이 공통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박광을 회갑연의 중요 인물로 보는 것이 맞다”며 “‘만해수연첩’이 만들어질 수 있게 된 서첩은 천재 소설가로 이름을 떨친 홍명희였다”고 밝혔다.

만해 스님 회갑연에 참석한 인물들의 면면도 화려하다. 3.1운동 민족대표 권동진·오세창과 안종원 양정고보 교장, 임정특파원 이병우, 독립운가 이경희, 홍명희 동아일보 편집국장(소설 〈임꺽정〉 저자) 등과 만해 스님의 아들 한보국도 참석했다. 이 회갑연에서 만해 스님은 7언 율시의 한시로 자신의 감회를 담아 서첩에 썼다.

이 같은 일련의 내용에 대해 김 전 특임교수는 “청량사와 만해의 역사에 간과할 수 없는 대상인 ‘만해수연첩’에 대한 문화유산 보존 차원에서의 관심을 요청한다. 나아가 수연첩을 근대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청량사의 비구니 대중과 주지인 신자영 스님에 대한 자료 수집도 유의해야 한다. 특히 신자영의 생애, 출가 동기, 사진, 사찰음식에 대한 비화와 일화 등이 중요하다. 이런 바탕 하에서 청량사 사지가 자료집 차원에서 출간돼 한다”고 제언했다.

사찰음식체험관 재개관 이벤트 ‘풍성’

9월 1일 재개관…선재 스님 특강
사찰점심밥상 · 사찰음식명상도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만당 스님, 문화사업단)이 운영하는 한국사찰음식문화체험관〈사진〉이 새롭게 리모델링하고, 9월 1일 재개관을 기념한 각종 이벤트를 진행한다. 한국사찰음식문화체험관은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노후화된 조리시설과 에어컨, 온수시설 등을 전면 교체했다.

문화사업단은 재개관일인 9월 1일 사찰음식 명장 선재 스님의 무료 특강을 진행한다. 선재 스님 특별 강좌에서는 가을에 걸맞는 머위대도토리 전과 방아잎 된장찌개 등의 시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일일체험 프로그램으로는 매주 금요일 사찰점심밥상과 사찰음식명상이 준비돼 있다. 사찰점심밥상은 점심시간을 활용해 사찰음식을 직접 만들어보고, 점심공양도 함께할 수 있는 강좌다.

9월 한 달간 체험관 수강생을 대상으로 사찰음식 기념품을 증정하고, 체험관 방문객을 위한 시원한 오미자 시음코너도 마련된다.

한국사찰음식문화체험관 관계자는 “노후된 시설을 개선하고, 수강생 및 방문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며 “새롭게 재개관하는 한국사찰음식문화체험관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내영 기자

양윤정 작가 ‘빛으로 가는 길’ 개인전

한국불교미술협 올해의 작가
9월 4~9일, 선아트스페이스서


양윤정 작가의 ‘빛으로 가는 길’.

한국불교미술협회 올해의 작가로 선정된 양윤정 작가가 개인전을 연다.

양윤정 작가는 9월 4일부터 9일까지 서울 삼청동 선아트스페이스에서 개인전 ‘빛으로 가는 길’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불교에서 진리를 찾아가는 길을 그린 심우도를 모티브로 작가가 내면의 빛을 찾아가는 과정을 그림에 담아 선보인다. 작품은 종이, 모시, 삼베 등의 다양한 매체 위에 분채를 여러 번 칠해 색을 덧대고, 금박·금분으로 마무리했다.

대표작으로는 채색화에 금분을 뿌리고 금박을 붙여 완성한 ‘빛으로 가는 길’과 하늘에서 진리의 꽃이 떨어지는 모습을 묘사한 ‘꽃비’, 세상에 진리의 빛을 전하는 모습을 표현한 ‘빛을 전하다’ 등이 있다.

양윤정 작가는 “빛은 어디에나 존재하고 있지만 찾으며 집착하면 보이지 않는다. 빛은 그저 스스로를 내려놓고 깊이 관조하면 어느새 우리 안에서 밝게 빛나고 있다”며 “‘빛’을 탐구하며 그린 그림을 한데 모아 ‘빛으로 가는 길’을 주제로 개인전을 펼치게 됐다”고 설명했다. 양 작가는 이어 “이번 전시에서는 보는 이 스스로 빛으로 가는 길로 들어서서 닫힌 문을 발견하고, 문을 열고 들어가 빛의 세계를 만나 진리를 꽃피워 세상에 전하는 이야기를 담고자 했다”고 말했다.

한편, 동국대 불교미술을 전공한 양윤적 작가는 2022년 화엄사 성보박물관에서 개인전 ‘玄門(현문)’을, 2024년 단체전 ‘화엄, 빛으로 그리다’를 선보였다. 2023년 세종문화회관에서 한국불교미술협회전 ‘각각형상’, 2021년 아라아트센터에서 동국대 불교미술전공 개설 50주년 기념전 ‘백년을 그리다’, 2020년 갤러리 한옥에서 ‘이공전’ 등에도 참여했다.

김내영 기자

불갑사 지장보살삼존상·시왕상 보물됐다

국가유산청 8월 22일 지정 공고
해남 은적사 철조비로자나불좌상도


영광 불갑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 · 시왕상 일괄 및 복장유물.

영광 불갑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시왕상 등 불상이 보물로 지정됐다.

국가유산청(청장 최응천)은 8월 22일 “‘영광 불갑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시왕상 일괄 및 복장유물’과 ‘해남 은적사 철조비로자나불좌상’ 등 4건을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영광 불갑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시왕상 일괄 및 복장유물’은 수조각승 무염(無染)을 비롯해 정현(正玄), 해심(海心) 등의 조각승들이 1654년(조선 효종 5) 완성해 불갑사 명부전에 봉안한 것이다. 발원문을 통해 지장보살, 무독귀왕, 도명존자, 시왕상 등 모두 27구의 존상이 제작되었음이 확인됐다.

제작 당시의 완전한 형태 그대로 전해져 조선 후기 불교 신앙과 조각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적 가치를 지닌다.

‘해남 은적사 철조비로자나불좌상(海南 隱跡寺 鐵造毘盧遮那佛坐像)’은 둥글고 양감 있는 얼굴, 사실적인 인체 비례, 추켜세운 오른손 검지를 왼손으로 감싸 쥔 지권인의 양식 등 신라 9세기대의 시대 양식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 작품으로 평가된다. 귀 등 일부 세부표현에서 고려 초기적 요소도 관찰된다. 특히 종교적 숭고미가 잘 표현된 표정의 예술적 완성도도 높다.

국가유산청은 이번에 보물로 지정된 ‘영광 불갑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시왕상 일괄 및 복장유물’과 ‘해남 은적사 철조비로자나불좌상’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유자(관리자) 등과 적극 행정의 자세로 협조해 체계적으로 보존·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김내영 기자

『화엄경』 주석의 결정판, 청량국사의 『화엄경소초』!
1,200년 침묵의 역사를 깨고 이 세상에 처음 눈을 뜨다!

『대방광불화엄경 수소연의초』 5차분 12권 출간!

『청량국사화엄경소초淸涼國師華嚴經疏鈔』 1~53



이 시대 화엄종주 해인정사 수진 스님이 엮어내는 화엄의 대서사시!

제22 십무진장품부터 제23 승도솔천궁품, 제24 도솔천궁게찬품, 제25 십회향품까지 12권 출간!

원문의 한 글자도 놓치지 않는 고지식할 정도의 꼼꼼한 번역!
역대의 「사기」들을 총망라하여 정리한 상세하고 치밀한 각주!



청량 징관 찬술 / 관허 수진 현토역주 / 신국판양장
(낱권 판매 가능)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